

8월24일(월)/누가복음10:38-42

제목: 행동파와 사색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서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다(38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경청했고.(39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였다(40절).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 분노하였다. “어째서 너는 일하지 않고 앉아 있느냐?” (40절) 이것은 두 기질, 즉 행동파와 사색파의 충돌이었다. 본래적으로 기질이 활동적인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다. 행동파는 사색하는 사람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경멸한다. 반대로 명상파는 깊은 분석 없이 몸부터 움직이는 행동파를 경멸한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공존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성’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질의 차이는 있었지만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극진히 섬기고 있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인격체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셨다.

8월25일(화)/누가복음11:1-4

제목: 하루의 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들어가야 할 기도제목 중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2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2절), 일용할 양식(하루의 밥)을 먹는 것(3절), 자신과 이웃의 죄가 용서되는 것(4절) 등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하루’의 밥을 먹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왜 하루인가? 이 하루라는 말은 모세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날에 필요한 하루의 식량만 모으면 족했다. 왜냐하면 하루 이상의 식량을 거두었을 때 그것들은 그 다음날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내일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하루’의 밥을 구하라는 것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단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매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족하며 살다보면 어느새 칠십년 팔십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다.

8월26일(수)/누가복음11:5-13

제목: 파렴치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주셨다. 어느 여행자가 밤늦게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6절)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자 친구는 이웃에게 빵을 빌리러 갔다.(5절)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이 닫힌 것은 사생활을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지만.(7절) 친구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강청하였다.(8절) “강청하였다”는 말은 “부끄러움 없이 필사적으로 파렴치하게 두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렴치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 있으면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하나님 눈치 볼 것 없이 무조건 구하라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파렴치하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것이다. 파렴치한 기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는 끈질긴 기도예 결국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9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나 온전 할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상관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은 파렴치한 사람이 되라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13절)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여주시니까 그렇다.

8월27일(목)/누가복음11:14-26

제목: 중상모략

예수님께서 한 병어리 귀신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14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귀신의 두목)을 힘입어 귀신을 내 쫓은 것이라 하였다.(18절) 예수가 왕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줄게 귀신을 내 쫓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 쫓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온전해 질 수 있겠느냐?” (18절) 되받아 치셨다. 이것은 악인들의 상투적인 수단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무수히 보았고 그의 설교를 많이 엿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제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더 이상 꺾을 수 없을 때 중상모략에 호소하는 습성이 있다. 어떤 목사가 창녀에게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대적들은 그가 음탕한 다른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라 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열등감 때문에 옳은 사람들을 얼마나 도살하고 있는지 모른다. 잘난 사람에게 이유 없이 중상 모략하는 이런 성향에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8월28일(금)누가복음11:27-28

제목: 투자를 바꾸면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알세불 논쟁 중에 한 여자가 소리 외쳤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도소이다” (27절) 아기 예수를 수태하였던 마리아에 대한 찬양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다.(28절)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성서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것이 가르친 대로 사는 자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성서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민감하셨다. 그는 심지어 자기의 참 모친과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라고 까지 하셨다.(누가복음8:21)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이 믿어주고 알아주는 것에 엄청난 희열을 느끼신다. 하나님은 성서를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생의 좌표로 따르는 자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못하신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고, 자기의 진정한 가족으로 안 받아드릴래야 안 받아드릴 수 없다.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생존을 여기에 걸어야 한다. 일, 능력, 업적. 성과보다 성서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성공에 가깝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